

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인다고 해도 공장에서 노동자를 추방하고 「컴퓨터」가 이를 대신하는 것같이 인간의사를 추방할수는 없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의학은 인간의 생명현상을 다루는, 따라서 과학만으로는 해결 안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아무리 인간의 심리현상까지도 기록하고 지시한다해도 <인간적 대화>를 통한 정신적 치료나 진단은 기계가 해 낼 수 없는 일이 아닐가.

더구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환자의 모든것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컴퓨터」는 딴 사람이 이를 나쁜 목적으로 복사한다해도 어쩔수없는 환자의 비밀보장이라는 의학윤리상의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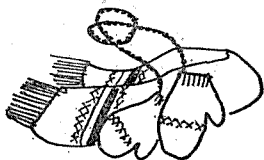
이것은 한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지나친 「컴퓨터」에의 의존은 급기야 비인간화(非人間化)를 초래하여 어느정도 인내와 절제로 다스려온 인간사회를 어지럽히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면으로 보면, 앞으로 머지않아 찾아올 「컴퓨터피아」에 우리 의학만이라도 그 고고(孤高)한 인간성을 고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감사·의박>

## 미래의 약품들

■ 김 윤 기



아무리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약이 없이는 병을 못고친다. 암이란다던가, 정신병이란다던가, 간장병이란다던가, 약이 없어 고치지 못하는 병은 부지기수다. 과연 가까운 장래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병들을 거뜬히 치료할 수 있는 신비로운 약품이 나올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측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또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예언을 간추려 살펴 볼 수 밖에 없다. 「마길」대학 교수 「하인츠·레만」박사에 의하면 20세기 말까지는 광폭증

특집 / 미래의 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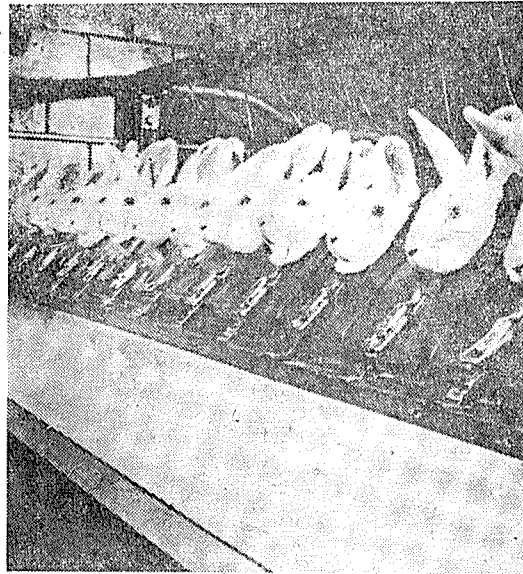
(狂暴症) 예방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약이 나오면 파괴적, 공격적 감정을 없애 주기 때문에, 전쟁이나 범죄행위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헛틀러」에게 이 약을 먹일 수 있었으면 2차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더그라스」회사의 「세오도어·고든」박사도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화학적·물리적 기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태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레만」박사의 예언을 보충하는 말 같다.

「아메리카」의 과대학의 「데비드·클랫치」박사는 1967년에 이미 사람의 두뇌를 종계하는 약을 동물실험중이라고 했는데, 그때 말로는 10년후, 이 약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양친의 유전적 결함을 미리 탐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약도 21세기전에 출현하지 않을까 보인다.

환상적인 약도 연구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즉 장차는 『술집이 아니라 약집이 생길 것이다』라고 「고든」박사는 예언하고 있는데, 이 약집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약을 먹으면, 행복감에 도취된다든지, 신비스런 기분에 감싸여 즐거움을 만끽할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이다.

20세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에 대해서는 왁친의 발견이 가까운 시일 내로 닥아오고 있다. 미국 「바팔로」



#### 새로운 약의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

제제용(製劑用)의 물의 순도(純度)를 확인하기 위해 발열시험(發熱試驗)에 이용하고 있는 토끼들: 그리고 또 토끼들은 새로 발명된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시험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에 있는 「로스웰·파크」기념협회의 「에드몬드·크레인」박사는 암을 암조직에서 빼어 낸 항체(抗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치료하는 방법이 곧 개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는 방사능을 입힌 세포와 항체를 결합시켜서 암조직을 파괴시키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컴퓨터 일 것이다. 병의 진단과 관리

##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가

에 쓰여질 컴퓨터는 약품의 효능측정이나 분석 평가에도 쓰여지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컴퓨터의 위력이란 무서운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 설치된 컴퓨터의 경우, 1초에 1백만건의 문제를 결정짓고, 250만건의 가감산(加減算)과 35만건의 곱셈(乘算), 16만건의 나눗셈(除算)을 할수가 있을 뿐아니라, 19개의 송수신(送受信) 능력을 가지고, 먼곳에서 발신되는 문제까지 처리하고, 스크린 위에 그래프, 도표, 사진은 물론 스퀘트까지 해가면서 필요한 영상을 보여 준다고 하는 놀라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계가 약품의 효능측정에 활용되면 이제까지 오랜시일을

걸려서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을 해오던 일들이 소용없어 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비스런 약품의 출현을 무턱대고 기뻐할 일은 아닌것 같다. 호주의 저명한 바이러스 학자인 「맥파렌·바넷트」경(卿)은 만약 사람이 100세까지 살수있는 세상이 되면, 인류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즉 인구의 절반이상이 65세이상의 노인들로 구성이 된다면 사회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폭발적 인구증가도 문제다. 현재와 같은 무서운 지구의 인구증가는 따지고 보면 항생제같은 기가막힌 약품들의 발명으로 유아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노인마저 죽지않고 살게되면 어찌될 것인지, 상상하기만해도 소름이 돋을 일이다.

그러나 어떤 학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들이 늘 먹는 음식이나 소금같은 조미료 속에 피임약이 섞이게 되어 저절로 인구조절이 될것이란 사람도 있으니 이것을 믿고 마음을 놓아야할까.

그러나 21세기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를테면 대머리 없애는 약이란다면가, 코고는 것 없애는 약 따위는 그때까지도 미해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필자=대한암협회 이사)

#### <토막지식>

#### 영어의 말(言語)수

영어는 모두 49만어다. 물론 여기에 기술용어(技術用語) 30만어가 있다. 그러니까 합해서 79만어가 된다. 이것을 언어수로서는 세계제일.

사람은 일반적으로 6만어 이상을 쓰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언어수의 겨우 1할도 못되는 말을 쓰고 사는 것이다.

1930년 「K.C. 옥덴」이 만든 기초 영어는 겨우 850어로 되어 있다. 문서영어래야 1만어, 회화로서는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이라야 5,000어 정도면 충분하다.